

부산의 근대화 경험과 시각중심적 시선의 탄생

김용규(부산대)

1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의 사진집 『촬영금지』에는 부산의 근대 이미지에 관한 인상적인 사진 2장이 실려 있다. 이 사진들은 1964년과 1986년에 각각 찍은 것으로 부민동이나 토성동 방면에서 보수동 산동네를 찍은 것이다. 구와바라 시세이가 이 사진들을 병치시킴으로써 이미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볼 때 우리는 이미지의 구조적 유사성을 느끼게 된다. 22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이미지는 64년의 부산과 86년의 부산 간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묘한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마 이 느낌은 낯선 이에겐 특히 더 그럴 듯하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구조적 유사성이 낳는 효과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큰 변화 없이 과거와 연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전쟁 시절부터 이곳에는 피난민이나 농촌 이주자들이 무허가로 지은 판자집들이 즐비했었고, 64년 무렵까지도 그런 집들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두 이미지의 구조적 유사성은 도시경관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86년의 부산 모습이 큰 형태적 변화 없이 연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은 60년대 한국사회를 내부자가 갖지 못한 냉정한 시선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구와바라가 단순히 두 사진 간의 이미지적 유사성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물의 차이를 담담히 담아내고자 하는 카메라의 시선도 이와 같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을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차이보다 동일성이, 이질성보다 연속성이 우선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 두 사진의 이미지적 유사성은 현실의 유사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사진을 찍는 구도의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초점을 잡는 방식, 흑백사진이라는 질료적 동일성, 그리고 조밀하게 들어찬 집들의 구도 때문에 이미지의 유사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지의 유사성을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곳을 찍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드는 사진 뒤면에 위치한 산의 능선이라는 점이다.

만일 사진 두편에 위치한 능선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미지적 유사성은 곧장 증발하고 두 사진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진이 동일한 장소를 찍은 것일까 하는 의문까지 들지 않을까. 사실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이 산의 능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 속에 잡아두어야 할 사진적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유사성을 접고 시촉적(haptic) 시선으로 사진에 다가간다면 유사성과는 전혀 이질적인 현실의 변화들을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다. 86년 사진에는 64년과는 많은 경관적 변화가 있다. 산동네의 상당수 판자집과 기와집들이 이미 철거된 상태이고, 그 자리에는 녹지가 조성되고 서민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교회와 학교가 들어와 있으며, 기와와 슬레이트 지붕이 콘크리트로 지은 집으로 대체되는 등 여러 구체적 변화들이 감지된다. 어떤 의미에서 86년의 사진에는 64년 사진에선 감지할 수 없던 근대화의 영향과 근대주의적 욕망 같은 것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근대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일정 고도 이상의 판자집들이 대거 철거되었고, 근대적 생활공간으로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단층에서 2층 이상으로 주거형태가 변했고, 집 간격이 보다 조밀해진 반면 가족적 사적 공간은 좀 더 넓어졌으며, 근대적 제도인 학교와 교회가 주요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86년 사진 속 사람들이 64년 사진 속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적 습속과 아비투스¹⁾를 갖고 있을 것임을 엿보게 한다. 86년의 사진 속 사람들은 64년 사진 속 사람들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근대화의 습속과 근대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하고 있을 것 같다.

사실 구와바라 시세이의 병치된 두 사진 사이에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은 부산의 근대 이미지의 급격한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을 예로 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부산 풍경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풍경의 변화보다 더 심층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아비투스, 즉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들이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적 성향체계의 변화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부산을 이해하는 방식은 주로 외견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사건 중심의 연속적 관점을 선호함으로써 문화적 단절과 변화가 낳은 부산의 근대적 주체 형성을 탐구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산은 일제 식민지에 의해 형성된 근대도시이다. 조선시대에 초량왜관이 있었지만 부산이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며, 특히 일제 식민지 시기였다. 하시아 히로시는 일본 식민도시의 형성을 새롭게 형성된 도시 유형, 기존 전통적 도시와의 중첩적 방식으로 형성된 도시 유형, 기존 대도시의 근교에 신시가지²⁾를 건설한 도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부산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더불어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첫 번째 유형의 도시라고 주장한다(하야시 17-8).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이는 동래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주장이다. 사실 부산은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도시가 결합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모두 부산에 속하지만 식민지 근대도시 부산은 동래와의 이원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일제는 부산에 모든

행정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중심을 집중함으로써 구 중심으로서의 동래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어놓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시아 히로시의 지적처럼 오늘날 부산의 모습에서 식민도시의 유산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부산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이 식민도시의 유산들을 급속하게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의 근대성을 거론할 때 일제 식민지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한국전쟁이다. 피난지 부산에서 겪은 극한의 생활 체험은 황순원, 안수길, 이호철, 김동리, 손창섭, 이호철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 소설가들에 의해 쓰여질 정도로 부산의 근대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을 다룬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소설화된 소재를 들라면 단연 한국전쟁기의 경험일 것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피난민의 처절한 생존과 관련된 경험, 가령 이호철 소설 「탈향」의 젊은이들처럼 그마저 갖기도 힘들었던 고지대 판자촌을 갈망하거나, 황순원 소설 「곡예사」에서 주인공의 아내가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를 해야 했던 생존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험도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지금 기억 내지 회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도시를 형성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도시사람의 주체적 아비투스 형성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부산의 근대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식민 도시경험이나 한국전쟁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구와바라 시세이의 두 사진 간의 차이처럼 부산의 근대화 과정이 가져온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부산의 근대화 과정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산의 근대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독특한 시선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시선은 세계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존재하는 현실이나 사물을 재현하는 투명한 체계가 아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이며 이미 매개되어 있다. 타자의 시선이 내면화된다는 말은 우리의 시선이 사회권력의 배치관계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이다. 조나단 크래리(Jonathan Crary)는 시각이나 인식은 자발적 역사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인식이나 시각이 발생하는 장을 구성하는 복수의 힘들과 규칙들이라고 말한다⁽¹⁹⁾. 본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 자체가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배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 시각의 생물학적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보아야 할 것과 보는 방식을 정의하고 그 방식대로 보게 만드는 특별한 배치”와 동시에 “그 안에서 작용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체제’”(이진경 85-6)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산의 근대적 시선의 문제를 살펴본다는 것은 부산의 경관이미지나 도시풍경을 살펴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뜻한다. 즉 그것은 부산의 근대적 시선을 독특하게 배치하도록 만드는 물질적이고 인식적이고 시각적인 구조를 밝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부산의 근대화 과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산의 근대적 시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잠시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소설로 읽는 부산]에서 조갑상은 부산을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19편의 소설들을 시기별로 배열함으로써 개항 후 현재까지의 부산의 이미지를 일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배열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개항에서 일제 강점기를 다룬 소설이 8편, 한국 전쟁기의 부산을 다룬 소설이 6편, 1960년대 초반을 다룬 소설이 3편, 70년대를 다룬 소설이 1편, 80년대를 다룬 소설이 1편이 들어있다. 우선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은 부산을 다룬 소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6년 이주홍의 「지저깨비」와 81년 이문열의 「하구」 사이에는 유익서의 「우리들의 축제」라는 단편 하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이 무렵 부산은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에 있었으며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년 평균 7.1%에 달해 65년에 150만, 72년에는 2백만을 넘어선다. 부산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할 때 부산의 근대화 경험을 다룬 소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솔한 공금증을 남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81년의 이문열의 「하구」가 과거에 부산을 다룬 소설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의 세계인 부산과 관계 맺는 방식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주인공과 삶의 지역 간의 관계가 체험적인 일상생활의 성격을 잃고 주인공의 내면으로의 '유적(流謫)'을 위한 공간적 배경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소설 밖으로 탐사여행을 떠나야 한다

한국의 근대화, 구체적으로 부산의 근대화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그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 한국사회는 역사상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거의 전 부문에서 사회변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정치적으로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경제적으로는 1962년 이래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년 평균 8.3%의 고도성장이 일어났고, 지리공간적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대적으로 흘러 들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유신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조국 근대화론이 결합하여 근대주의적 집단의 욕망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 부산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부산의 변화는 그 성격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70년대 들면 서서히 침체와 쇠퇴를 겪게 되지만 이 시기의 부산은 높은 경제호황을 누린다. 산업구조, 산업생산율, 부가가치율, 제조업고용비율 등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였고, 특히 생산증가율보다 높은 부가가치 증가율, 생산증가율보다 낮은 임금증가율을 통해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이룩해가는 전형적인 포드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박영구에 따르면 1960년대 부산산업은 전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1968년 부산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국비중 22.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박영구 233). 이에 따라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년 평균 7.1%에 달했으며 해방 후 40만 명, 한국전쟁기 88만 명, 그 이후 피난민의 귀향과 더불어 감소하다 65년에 150만을 돌파하고 72년에는 2백만, 75년에는 2백5십만에 이른다. 한국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과 부산의 거대도시권으로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70년과 75년 사이의 전국 인구증가분의 90.5%를 흡수하였으며 1975년까지 전국인구의 36%가 이 두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윤상길 34).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과 인구집중만으로 부산의 근대적 시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무렵 부산은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에 있어 유례 없는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경제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앙으로 급속하게 종속되어 간다. 이런 종속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자립경제보다 미일 자본 주도의 국제분업망으로 편입되는 종속적 과정의 지역적 표현이다. 이 시기 한국경제는 외자에 의존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따라 차관과 같은 화폐 자본은 물론, 생산수단, 기술도입, 생산품 모두를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재생산구조의 종속성’을 구조화하게 된다. 특히 국가 주도에 의한 고성장의 혜택은 재벌에 집중되는 자본의 고착적으로 이어졌다(임휘철 248). 이런 재생산구조의 종속성은 지역의 새로운 배치와 중심으로의 예속을 강화한다. 즉 기획, 설계, 관리, 경영 등의 행정관리 및 구상기능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에 반해 지역을 중앙의 기획과 관리에 의한 특화된 공급지 내지 생산지로 편성할 필요가 생겨난다. 그럼으로써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공장이 집중 배치되는 (...) 독점자본의 분공장”(홍성태 86-91)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런 종속의 귀결이 바로 중앙과 지역,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의 고착화이며 향후 지역은 중심이 부과하는 특화된 역할만을 강요받게 되면서 재생산의 자율적 구조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종속은 지금까지도 지역 간 갈등과 지역경제의 부침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종속이 지역의 주체들에게 잘 의식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런 종속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전과 개발 이념에 근거한 근대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지역적 주체는 중앙으로의 진출을 갈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가난과 자개발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의 종속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종속은 지역주체의 근대주의적 욕망 속에서 은폐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경험의 변화와 별개일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사회문화적 경험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체제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와 경제개발의 지속적인 수행에 사활을 걸고 있던 독재 정권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주체들을, 근대화에 매진할 근대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권의 재생산에 동의할 ‘국민’으로 호출하는 새로운 주체 형성에 힘을 쏟는다. 이런 과정은 조지 모스(George Mosse)가 말한 ‘대중의 국민화’ 과정과 같은 것이다. 모스에 의하면 나치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세계와 개인적 전통적 유대관계가 해체되던 20세기 초 독일에서 산업화의 파괴적 결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을 다양한 신화의 창안, 조형물의 건립, 공간의 배치를 통해 통합하고자 하였는데, 모스는 이를 ‘대중의 국민화’로 명명한 바 있다(Mosses 6). 한국의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역시 학교와 군대와 같은 국가장치들의 적극적 활용, 신문과 방송과 같은 대중미디어의 통제, 국민형성을 위한 문화기관과 조형물 건립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중의 국민화는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지역의 국민화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역적 삶을 민족적

요구 속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주체들을 국민으로 호명함으로써 국민적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김용규).

지역의 국민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면, 지역 학생들의 서울 국립박물관 체험과 부산의 중심도로의 교차로에 설치된 송상현과 정발 동상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국민 형성의 가장 주된 제도이다. 박물관은 “역사의 시간적 순서를 공간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공간적 배열이 시간적인 발전이 되도록 만듦”(고진 308)으로써 역사적 연관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한 유물들을 민족주의적인 시선으로 배열함으로써 역사를 선형적으로 전개하는 재현 장치이다. 동시에 박물관은 관람하는 주체들을 민족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존재하는 국민적 주체로 호명하는 주체 형성의 장치이기도 하다. 모델이 현실을 대체해버린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의 세계처럼, 이 장치를 통과한 국민적 주체는 이제 이렇게 배열된 역사(재현된 역사)를 모델로 삼아 박물관 밖의 현실 즉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하마 히데오 267). 서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역의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을 가난과 저발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한편, 개발과 발전이 필요한 근대적, 민족적 공간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상이나 조형물 역시 박물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산의 핵심교차로에 서있는 정발, 송상현 동상들은 도시 중심에 강력한 의례공간을 창조하고 도시 공간을 국민화하기 위한 일종의 열린 박물관이다. 그것은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체들을 국민으로 호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지역의 국민화의 과정은 지역을 바라보는 지역주체의 시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선 이 과정으로 인해 지역적 삶의 일상생활의 시간은 외부의 보다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근대적 시간에 의해 점차 밀려나게 된다. 일상생활의 시간 위에 국민의 시간이 포개짐으로써 일상생활의 감각적 체험의 시간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동질적이고 추상적이며 공허한 시간’으로 대체된다. 특히 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시간에 개발과 발전이라는 근대주의적 욕망이 스며들 때 지역의 시공간은 대상화되고 지배되어야 할 시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을 바라보는 주체의 추상화된 시각과 지역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체의 일상생활이 서로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일상생활의 리듬에 충실한 지역주체의 몸과 근대주의적 욕망에 내몰리며 발전을 갈망하는, 그럼으로써 중앙을 종속적으로 내면화한 지역주체의 시각이 분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국민화 과정은 지역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적 삶의 리듬을 대상화하여 그것을 지배와 헤게모니의 대상으로 삼는 시각중심주의 같은 것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바로 이런 분열에서 급격한 근대화와 국민화 과정 속에서 지역에 대한 소설들이 거의 쓰여지지 않은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문인의 중앙권력이라는 역학관계가 지역작가들로 하여금 글을 쓸 지면을 제한하는 크나큰 벽이었고 그것이 부산 소설이 쓰여지기 힘들었던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지역 작가들 또한 중앙을 매개로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근대주의적 욕망의 시선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적 삶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삶을 글로 쓴다는 것은 곧

근대주의적 욕망의 프리즘에 비춰 자신의 구질구질한 가난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한 이문열의 소설 「하구」에서의 주인공 ‘나와 강진(하단) 사이의 달라진 관계이다. 2년간 방황한 주인공은 의지할 유일한 혈육인 형을 찾아 낙동강 하구 강진(하단)을 찾는다. 형은 이곳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모래채취 사업이 활발하고 업주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당시 부산이 급격한 도시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단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형의 사업을 도우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인공과 하단 간의 관계이다. 주인공에게 하단은 자신의 질적인 체험적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유적(流跡)을 위한 단순한 배경에 불과하다. 주인공이 하단에서 가장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의 검정고시를 돕는 대학생 서동호와 도회에서 요양 차 온 별장집 남매 정도다. 이들 역시 하단에서 구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애초부터 주인공은 하단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이자 관찰자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밤을 할퀴고 지나가는 잔인한 세월의 바람 소리 같은” 주인공의 차참한 유적이 하단과의 질적·체험적 관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 차단의 배경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인공의 근대주의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한 욕망은 주인공의 일기장에 잘 나타나 있다.

자기에게 끊임없는 생활의 눈길을 던지는 것, 자신을 정신적인 무위와 혐오할 만한 둔감 속에 방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저급한 쾌락주의, 젊음의 일회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따위,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경멸하도록 가르치거나 그것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포기하도록 권하는 모든 견해에 반역하라.(…)

값싼 도취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라. 독한 술은 무엇보다도 네 기억력을 급속히 감퇴시키고, 원활한 사고를 방해하며, 의지력과 극기심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무지하고 단순한 너 이웃에 대한 네 정신적인 우월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라. 그 터무니 없는 우월감은 너를 천박한 자기만족에 빠뜨리고, 네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이문열 「하구」)

저급한 쾌락주의와 값싼 도취에 대한 갈망을 멀리하고, 정신적 무위와 혐오할 만한 둔감에서 벗어나며, 무지하고 단순한 너 이웃에 대한 정신적 우월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것을 주문하는 일기 내용은 근대주의적 욕망으로 코드전환될 수 있다. 즉 그것은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기기율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근대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특히 너 이웃에 대한 정신적 우월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그 인정의 인색으로 인하여 주변세계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우월을 더 강화하는 근대주의적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외부의 표준적이고 추상적 가치의 개입에 의해 자신의 일상생활의 삶을 가난으로 발견하는 것이 근대주의적 욕망이듯, 주인공이 하단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것도 바로 하단의 가난이라는 점, 그리고 이 소설이 하단의 유적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그 계기가 검정고시-검정고시는 가난한 청년이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근대주의적 욕망의 기표로 작용한다—라는 점, 나아가 하단을 둘러싼 부산의 급격한 공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유적이나 외로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은 근대주의적인 초월의 욕망이 하단의 일상생활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하단을 바라보게 만드는 주인공의 독특한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 하단이라는 일상세계와, 하단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중에 그 고립을 풀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주인공 사이의 분리는 끝까지 깨지지 않는다.

이문열의 소설 「하구」에서 주인공과 하단의 일상생활 간의 관계는 앞서 말한 일상적 삶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간의 분리에 근거한 근대적 주체의 시선과 일치한다. 「하구」는 과거 부산을 다룬 소설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소설들이 아무리 부산에서의 가난하고 빈궁한 현실을 그리더라도 그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주인공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감각적·체험적 현실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문열의 「하구」에서는 주인공과 일상세계, 그의 시선과 몸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즉 시선만이 독립하여 자신의 몸과 연결된 세계를 대상화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시각)과 그가 살아가는 현실(몸) 사이의 분리는 중앙의 뉴스를 열심히 보다 지역방송이 나오면 시큰둥해지거나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지역적 주체의 무의식적 동작 속에서도 되풀이된다.



이와 같은 일상적 몸과 초월적 시각 간의 분리, 일상생활의 리듬과 대상화를 위한 시선의 분리라는 근대적 시각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73년 세워진 용두산 공원의 부산타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발 63미터 높이 120미터 위에 서있는 부산타워는 광안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부산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물이었다. 지금은 노후하여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광객을 제외하면 찾는 이도 별로 없는 등 과거의 상징적 기표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73년 건립 당시 부산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선사한 최대명물이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느낀 체험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산공간에서 갖는 구조적 이미지는 근대주의적이다. 즉 그것은 가난하고 누추한 일상생활의 중간에서 솟아올라

지배와 헤게모니의 강렬한 시각적 광경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타워는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고 시각만을 특권화한 지역주체의 근대주의적 욕망과 상동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높이는 개발과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고 신분상승과 초월을 지향하는 근대주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부터 시각만을 분리하여 120미터 높이의 초월적 지점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지역주체의 일상생활과 그가 바라보는 시각의 분리를 구조화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 삶과 분리된 시각을 내면화함으로써 푸코의 전방위적 판옵티콘처럼 자신의 일상생활 자체를 균질적이고 동질적이며 추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바로 이런 균질적이고 추상적인 시선의 지배 하에서 지역의 질적 삶과 그 감각적 리듬은 망각되고 마는 것이다. 부산의 근대화 과정, 그리고 지역의 국민화 과정은 사실 지역적 삶의 망각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 팽창하고 삶의 형태가 격렬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지역을 다룬 소설들이 점점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의 망각 때문은 아니었을까.

4

90년대 들면서 부산에서 지역성과 지역의 가치에 대한 담론들이 새롭게 유행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지역자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구조의 전면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부산을 떠나거나 문을 닫고 그 대신 유통, 관광, 서비스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2000년 들어 부산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지역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지역을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망각된 지역이 의식 속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복권이나 지역성의 가치에 대한 각성이 아니라 지역을 대상화시키고 지배해온, 그리고 지역의 일상생활과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리시켜온 시각 중심적 근대주의적 욕망의 극복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광(tourism)과 더불어 시각 중심주의는 훨씬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관광의 메커니즘 하에서 지역의 일상생활과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의 분리가 다시 결합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각 중심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그 연장이며 발전이다. 근대주의적 시선이 일상생활의 리듬으로부터 바라보는 시각만을 특권화하여 분리하였다면,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은 일상의 현실로 귀환하여 일상생활 자체를 바꾸어가기 시작한다. 즉 관광의 메커니즘 속에서 일상생활의 리듬과 바라보는 시각의 분리는 내파되고 일상생활을 스펙터클로 변형시키는 훨씬 교묘한 시각 중심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헌

고진, 가라타니 [미술관으로서의 역사, {창조된 고전}, 왕숙영 역, 소명출판, 2002

김용규, [지역의 국민화와 근대부산의 정신분석, {오늘의 문예비평}

시세이, 구와바라, {촬영금지 한국 격동의 4반세기}, 눈빛, 1994

박영구, {부산의 제조업 1900~2000(II)}, 부산발전 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윤상길 [새마을 운동 관련 미디어 선전물을 통해 구성되는 근대 '국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2000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5

임휘철 [종속적 자본축적과 그 귀결, 박현채 역음,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1993

조갑상 편 {소설로 읽는 부산<혈의 누>에서 <우리들의 축제>까지}, 경성대 출판부, 2004

크래리, 조나단. {관찰자의 기술}, 임동근, 오성훈 역, 문화과학사, 2001

히데오, 하마. [타임머신으로서의 박물관, {관광인류학의 이해}, 황달기 역, 일신사, 2001

히로시, 하시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세정 역, 모티브, 2005

홍성태.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Mosse, George.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Howard Fetig, 1975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필자소개

김용규

63년 부산 생, 문화이론 전공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 비판과 이론의 대두]로 박사학위 취득

미국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

저서 {문학에서 문화로}로 제7회 가담학술상을 수상하였음

계간 {오늘의 문예비평} 편집위원 {비평과 이론} 으로 활동

저서로는 {문학에서 문화로}, {문화의 풍경, 이론의 자리}(공저),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공저), {틈새공간의 시학과 실제}가 있고, 쓴 주 논문으로는 [세계체제 하의 비평적 모색제임슨, 모레티, 칸쿨리니를 중심으로], [반주변부 지역문화의 전망], [문화연구의 전환과 잡종문화론], [시물라크르의 물질성과 탈재현의 정치학]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비평과 객관성}, {유럽중심주의}, {영미문화연구—크루소의 발자국}(공역)이 있다. 현재 주로 서구 문화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반주변 문화이론과 도시공간에 관한 실천적인 문화연구에 관심이 있다. 부산 지역에 관한 글로는 [추상적 공간으로 변해가는 부산]({오늘의 문예비평}, 2002년 봄), [지역의 국민화와 근대부산의 정신분석]({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겨울), [부산공간의 변화와 그 문화적 의미]({한국민족문화}, 2004. 10) 이 있다.

Busan's Modernization Experiment and the Birth of Ocularcentric Vision

Kim Younggyu(Busan National University)

1

The photography book called *No Photography* by Shisei Kuwabara contains two impressive photographs of the modern image of Busan. These pictures taken in the year 1964 and 1986 show the small mountain village in Bosu-dong viewed from Bumin-dong or Toseong-dong. It is not self-evident whether, by juxtaposing these two pictures, this photographer intended to represent the similarity between them or the difference caused by rapid change. Nevertheless, at the first glance, these images appear to have structural similarity. Although as much as twenty two years intervenes between them, they look similar in some strange way as if bridging the gap between Busan in 1965 and in 1986. Perhaps, this would be more strongly felt in strangers. The effect of this structural similarity might well offer conjecture that the life of people living in that city did not underwent considerable change with continuity from the past. Since the Korean War, this city had been crowded with illegal shacks built by refugees or immigrants from rural communities, which had not been improved around until 1964. The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two images leads the viewers to presume that the scene of Busan in 1986 maintains continuity without major morphological change, in spite of some transformations in the urban view.

Shisei Kuwabara's photographs are considered to capture the Korean society in the 1960s with a dispassionate eye, that is, from a distance and not that of an insider. Especially, a closer look of the photographs mentioned above will tell you that Kuwabara did not mean to show the similarity between the images. Nevertheless, the juxtaposition of two pictures like these sometimes results in an unintended consequence although the camera eye maintains a calm attitude in catching the difference of the objects. It could happen that the viewers come to see the identity rather than difference, the continuity rather than heterogeneity. Perhaps, the similarity in this case migh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camera angle than real resemblance between them. It is the way of focusing, the material sameness as black and white photo, and the arrangement of close-packed hous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sense of similarity. In particular, it is noticeable that what actively functions to create the similarity is the ridge of the mountain in the background of the photographs. This ridge makes us infer that those pictures are photographed from the same location.

What would happen if the ridge was removed? Will not the similarity immediately disappear and then, the radical difference between them suddenly appear? Will not the viewers come to doubt whether these pictures were taken of the same place at all? In fact, the reason why the photographer sticks to the ridge seems to come from the photographic necessity of constantly holding the present appearance that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 in the past one. If we approach the pictures not from the viewpoint of visual similarity but with a haptic eye, we could feel the changes in reality that are far from the similarity.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scene in the photograph taken in 1986 in comparison with that taken in 1964. A considerable number of shacks and tile-roofed houses had been already demolished, to be displaced with green space, low income apartment complex, churches and schools, and houses built of concrete. In some sense, the photograph taken in 1986 is deeply saturated with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and the desire for modernism which is not perceived in that taken in 1964. Through the impact of modern urban planning, hundreds of shanties under certain height limits were destroyed, apartment houses as modern dwelling places were built, most of houses changed from one- to two storied buildings, the space between houses became narrower while the private space of family became larger, and churches and schools as modern institutions were placed in an important place. This makes us presume that people in the former photograph had cultural conventions and habitu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people in the latter photograph. Those who live in the former photograph seem to have had internalized modern customs and desires much more intensively than those who in the latter one.

Indeed, the rapid change in the images of modernized Busan, which is invisible to us, is hidden between Kuwabara's two photographs. This is why I focused on his photographs. A right understanding of the change of the scenes of this city will require investigating the cultural habitus, that is, the system of cultural inclinations where the subjects construct the space and are constructed by it through interaction with it. The previous studies on Busan seem to have neglected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ubject through the cultural disconnection and changes of Busan, by concentrating only on the changes in outward appearances and privileging the serial view of the history centering round historical events.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Busan is a modern city constr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ough there was Choryang Waegwan(Japan town) in the Joseon dynasty, it is only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s in 1876 and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at Busan became a modern city worthy of its name. Hiroshi Hashiya attempts to divide the Japanese colonial city into three types: the first one is a city newly creat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e second is a city built by overlapping with the old traditional one, and the third is a city made by establishing a new urban district beside the suburb of a existing big city. According to him, Busan is categorized in the first type(Hashiya, 17-8). Though it may sound reasonable, this makes a mistake in that it ignores the existence of Dongrae. Rather, the case of Busan should be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type. Busan as a modern colonial city had been formed in a dual relation with Dongrae, though both are belong to Busan now. By establishing Busan as the center of every aspect of city life including administratio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hanged the functions and roles of Dograe as the old center. Nevertheless,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the traces of a colonial city in Busan unlike Hayashi's argument. This is because the rapid modernization process of Busan, particularly in the 1960s, also exterminated all of the legacies of the colonial city. In discussing the modernization of Busan, what comes next to the Japanese Occupation is the Korean War. The extreme life experience in Busan as the place of refuge is related with the modernity of this city so fundamentally that had repeatedly appeared in the works by the representative Korean novelists like Hwang Sunwon, An Sugil, Lee Hocheol, Kim Dongri, Son Changseop and others. What has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stories about Busan would be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Most of their contents are about the experience related to the refugees' miserable life like that of the youths in Lee Hocheol's *Far From Home* who long for the shack village on hillside however humble it may be, or that of the protagonist's wife who ekes out a scanty living by selling in Gukje or Jagalchi market in Hwang Sunwon's *Acrobat*. However, these experiences now exist only as memory or recollection after they have gone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If the historical events or experiences connected to the construction of a city have meaning, it

should be estimated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hey have continuously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the subjective habitus of the urban dwellers. In this sense, it seems to me that the experiences caused b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Busan, as are illustr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Kuwabara's two photographs, is of more importance though the colonial urban experience or the Korean War should not be overlooked in investigating the image of modern Busan. This is because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Busan produced both the image of modern Busan and the unique vision composing it which is still valid.

2

Our vision cannot perceive the world as they are in a transparent way. It is not a transparent system to represent the things or situations. Our vision is already that of the internalized other, as a mediated one. Here, the internalization of the other means that our vision is constructed culturally and historically by the social placement of power. Jonathan Crary asserts that a history of vision or perception is not a voluntary one but and what determines its history is the plural forces and rules composing the field(19). Seeing is not looking at automatically but a social construction by the material and institutional placement. Thus the problem of vision is more related to both "the specific placement to divide what is visible and invisible, to define what ought to be seen and unseen, and to make us see only in that way"(Lee Jinkyung 85-6) and "the system in which power works in the placement", rather than to the biological structure of our vision in itself.

Thus, an investigation of the modern vision of Busan cannot be confined to the scenic image or urban landscape of Busan. To put it another way, it involves to examine the material, epistemological, and visual structure which creates a specific placement of the modern vision of Busan. The reason why modernization process of this city is important is that it had a decisive influence on forming its modern vision. For example, Cho Gapsang in his *Busan in Novels* offers a general survey of the images of the city from the date of opening its ports to the present by chronically arranging the nineteen novels about it. Here, what draws the attention is its arrangement. This book includes eight pieces on the period from the Open-door to the Japanese Occupation, six pieces o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three pieces on the early 1960s, one piece on the 1970s, and one piece on the 1980s. What is most noticeable is that the number of novels about Busan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To take an instance, there was only one work, that is, Yu Ikseo's *Our Festival*, between Lee Juhong's *Chip* and Lee Munryul's *The Mouth of a River*. What was the reason? In fact, Busan around these times was in the peak of its modernization process and its population growth rate averaged 7.1% a year, with population of 1.5 million in 1965 and 2 million in 1972. The fact that there were few novels about the modernization experiences of Busan when it had most rapid change rouses curiosities. Furthermore, Lee Munryul's *The Mouth of a River* in 1981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novels dealing with Busan in many respects. The way that the protagonist relates himself with his world, Busan has considerably changed. The relation between him and his living place loses the qualities of the experienced everyday and thereby, the city was degraded into the spatial background for his internal exile. In order to find the reason, we should start an exploration out of the novel.

It is well known the fact that the modernization of Korea, especially, Busan was done from the 1960's and the late 1970's, as well as how it was done. During this time, Korea underwent the most rapid

change in its history and witnessed violent social transformation in broad areas including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e authoritative military regime took over power by 5.16 Military Coup in the political part;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hich had been executed three times since 1962 increased the Korean economic growth rate to average 8.3% a year in the economic part, the rural population flowed into urban areas on a large scale in the geographical part, the modern collective desire combining nationalism, anticommunism, and the slogan of “National Modernization” was introduced to reinforce the Yusin(Revitalizing Reforms) dictatorship in the social and cultural part.

At this time, Busan went through similar experiences. However, those of Busan took on a different aspect. This city was enjoying high economic prosperity though it gradually fell into degeneration and stagnation. It could achieve extremely high growth in industrial structure, industrial production rate, added-value rate, industrial employment rate and so on. And by maintaining the added value increase rate higher than the production increase rate, the wage increase rate lower than the production increase rate, it could guarantee a broadened reproduction of capital and thereby, accelerated the advent of Fordism. According to Park Younggu, the industry of Busan marked the highest point in the entire Korea in the 1960s and in 1968, Busan’s industrial added value occupied 22.3% of the national total, the highest figure in the country(Park, 233). Accordingly, the migration of population to Busan increased rapidly. As is noted earlier, Busan’s population growth rate averaged 7.1 % a year. The population started with 40,000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Liberation, and reached 880,000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n temporarily decreased after the refugees returned home, and broke through 1,500,000 in 1965, and marked 2,000,000 in 1972 and 2,500,000 in 1975. What defines the Korean urbanization most is the fact that most of the population converged on the megalopolitan area of Seoul and Busan. Seoul and Busan absorbed 90.5% of the population growth of Korea from 1970 to 1975 and they had been inhabited by 36 percent of the whole population by the year 1975(Yoon Sanggil, 34).

Nevertheless, these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are not sufficient in explaining the modern vision of Busan. By this time, Busan was in a state of unprecedented upheaval in economical structure and social culture. In the first place, and from the economical point of view, this city became increasingly subordin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spite of its rapid economical development. This is a regional version of the subordinate process where Korean economy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dominated both by the US and Japan since the 1960s. Korea came to construct “dependency of reproduction structure” that relied on foreign market for means of production, introduction of technology, and products as well as money capital as a result of following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Especially, the benefit of the government-driven high growth led to intensive capital accumulation of *jaebol*(Im Huicheol, 248). This dependency of reproduction structure consolidates new placement and subordination to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That is, it requires that administrative and planning functions like designing,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metropolitan area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provinces should be supplying or producing centers specialized for the central government’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e eastern and southern part of Korea including Busan degenerates into “a branch factory of monopoly capital (···) where large-scaled plants mainly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are placed in an intensive way”(Hong Seongtae, 86-91). The ultimate result of this subordination is the very fixed dichotomy of the central and local areas, core and periphery and moreover, the local areas are forced to

undertake only the specialized roles imposed by the center in the future, losing their autonomous structures of reproduction in the last analysis. Besides, as is widely known, the regional subordination to central authority has been already the source of conflicts among provinces and their economic underdevelopment.

The reason why this economic subordination is not recognized well by local subjects is that they have internalized the modern desire to take it for granted. The local subjects who internalize the modern desire based on the ideology of development and progress define their own life as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and accept the regional subordination as natural by yearning for entering the central area. In this way, the subordin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is concealed by the modern desire of the local subjects. This situation shows that the changes in economical structure can never be separated from those in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 the dictatorial regime which makes every effort to ensure the legitimacy to strengthen the authoritative ruling system and to execute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continuously strives to transform the newcomers into urban areas to a new subject who would internalize the modern desire to push forward modernization and consent to the reproduction of the authoritative regime, that is, in brief, to interpellate them as “a nation”. This process is not different from what George Mosse call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According to Mosse, the Nazis attempted to integrate the public desire to escape from the devastating consequence of industrialization by inventing various myths, establishing sculptures and spatial placement in Germany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rapid industrialization was destroying the traditional world and the social relationship, the whole process of which he describes a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Mosse 6). The Korean authoritative dictatorship also directed its efforts to actively use the state apparatus like schools and army, control mass media like newspaper and TV, and establish cultural institutions and sculptures to form a nation.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is also that of the provi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m. It intends to incorporate the regional life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and the local subjects in the national by interpellating them as a nation(Kim Yonggyu).

This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would be well illustrated by local student’s visit to the national Museum in Seoul or the sculptures of Song Sanghyun and Jeong Bal. A museum is the most principal institution to form a nation. It is a device of representation to produce a linear unfolding of history by presenting “the chronological order in a spatial way and further, make the spatial arrangement to the temporal one”(Gojin, 308) and by arranging the relics that have no or little historical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from a nationalist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functions an institution for subject formation by interpellating the viewers as a national subject who are situated in the huge stream of national history. As in the Baudrillardian world of the simulacrum where reality is displaced with model, a national subject who has pass through this device begins to see the reality outside the museum, that is, his own reality in terms of the history arranged in that way(the represented history)(Hideo Hama, 267). The local students who have taken a school trip to Seoul come to recognize their own region not only as a place of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but also as a modern, national space which needs development. Statues or sculptures perform the function like that of a museum. The statues of Song Sanghyun and Jeong Bal placed in one of the main intersections in Busan is a kind of open museum to create a powerful ritual space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to nationalize the urban space. It exercises the function to

interpellate the subjects as a nation in a more long-term and continuous way in that it is open.

3

What influence did the process of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on the local subjects' eyes on their own area? First of all, the process gradually replaces the daily time in regional life with the more transcendental, abstract time of modernity. The overlapping of the time of the nation on the everyday time pushes out the time of the sensuous experience in everyday life in defense for what Benedict Anderson calls the "homogeneous, empty time of the nation". When this homogeneous, empty time is imbued with the modern desire for development and progress, the space and time of the region is turned into those that should be objectified and dominated. This ultimately results in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local subjects' abstract eyes on the region and the everyday life of them who experience and live in it. To put it another way, the body of the local subject who closely follows the rhythm of everyday life and the vision of him who has come to crave for development by being driven by the modern desire and thereby, has internalized the center in a subordinate way are disjointed, working separately. Consequently,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forces the local subject to objectify the rhythm of his everyday life and form a kind of ocularcentricism which dominates or exerts its hegemony over the rhythm.

Perhaps, this very estrangement, this very process of rapid modernization and nationalization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phenomenon that novels about the region have hardly been written. Of course, the relation of power, that is, the central power of Seoul writers which began to establish itself during that time put restrictions on the opportunities of regional writers, thereby interfering with lively production of novels about Busan. Nevertheless, was it not that the regional artists themselves ignored their own daily life by internalizing the modern desire to success in the center? Was it not that writing their own life was nothing but reveal their mean poverty by projecting it on the prism of the modern desire?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e changed relation between the protagonist 'I' and Gangjin(Hadan) in Lee Munryul's *The Mouth of a River*. After two years' wandering, the protagonist visits Gangjin(Hadan), the mouth of Nakdong River to meet his brother, his only blood relative he can count on. His brother runs a sand-mining firm there. The fact that the sand mining business thrived and the business owners fiercely competed with one another reflects that Busan was undergoing rapid urban change. The protagonist decides to prepare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while helping his brother.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him and Hadan draws the attention. For him, Hadan is not place for his qualitative experience but a mere background for his internal escape. Seo Dongho who is a student helping the protagonist prepare the exam and a brother and sister who come from a city and stay at their villa for recuperating are the only persons to whom the protagonist concretely relates. But they are not those who live a concrete life in Hadan, neither. It can be said that from the beginning, protagonist has been a spectator or an observer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ife of Hadan. This may be because his wretched escape like "the sound of wind of the cruel time scratching night and going" prohibit him from having a qualitative, experiential relationship with Hadan. Yet, it is not difficult to read out his modern desire in the background of this prohibition, which is well described in his dairy.

It is required to cast the eyes of reflection on myself constantly, to exert myself not to leave myself in mental inactivity and the disgusting dullness. (···)

Rebel against low hedonism, excessive emphasis on the "once-for-all-ness" of youth, and all kinds

of opinions that teach me to contemplate the process of everyday life or incite me to abandon the sincerity and endeavor for it. (…)

Give up the longing for cheap intoxication. Strong liquor will weaken your memory, hinder your thinking, and deteriorate your power of will and self-denial conspicuously. Be stingy in recognizing your mental superiority to your unlearned, simple neighbors. The unconscionable sense of superiority will fall you into the vulgar self-content, be an severe obstacle to your growth and development.. (…)

Lee Munryul, *The Mouth of a River*

These injunctions to keep away from low hedonism and the longing for cheap intoxication, to escape from mental inactivity and the disgusting dullness and to be stingy in recognizing your mental superiority to your unlearned, simple neighbors can be rightly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de of the modern desire. This is none other than modernism which persuades individuals into being ready to give up all his desires in the name of the self-discipline for growth and development. Especially, bearing in mind to be stingy in recognizing his mental superiority to his unlearned, simple neighbors discloses the desire of the modern man who reinforces this superiority over his surroundings all the more because he is stingy in the recognition. As is noted earlier, the modern desire made one find his everyday life poo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outer, standardized, and abstract values. In *The Mouth of a River*, the facts that what is most impressive to him is Hadan's 'poverty', that he leaves his life of escapism and returns to Seoul, that he can do them throug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which functions as a signifier of the modern desire to be relieved of the distressed condition—, and the rapid spatial change of Busan including Hadan has no influence on his escapism and loneliness all create the unique eyes with which he can see Hadan without taking part in the everyday life there. The separation between the daily world of Hadan and the protagonist who isolates himself and later leaves for Seoul to resolve the isolation does not disappear until the end of the novel.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agonist and Hadan's everyday life corresponds to the modern subject's vision which, as is stated above, is founded on the division of daily life and the vision to see it. *The Mouth of a River* has qualities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novels about Busan. Even when they describes the poor and miserable reality in Busan, the latter accepted it rather as a fate or approached it as sensuous, experiential reality in close relation to the protagonist. Conversely, in *The Mouth of a River*, the protagonist and the everyday world, his vision and body are separated thoroughly. Only vision becomes dependant, objectifying and isolating the world connected to its body. This disconnection between the protagonist's vision(eyes) on his life and the reality(body) where he lives is also repeated in the subconscious activity of the local subject who suddenly loses interest or changes the channel when TV begins to broadcast a regional program after news about the Metropolitan area.

It seems that Busan Tower erected in Mt. Yongdu Park in 1973 well embodies this modern visualism embedded in the separation between the daily body and the transcendental vision, between the rhythm of everyday life and the eyes for objectifying. The 120m high tower situated at 63 m above sea level had been the representative symbol of Busan until the Gwangan Great Bridge was built. The tower is losing the role of symbolic signifier that it used to have: it is visited by few people except visitors and is so old to be discussed as a construction to be removed soon. Nevertheless, the tower had offered the

visual spectacle of the entire outlook of Busan since it was built in 1973.

Although the visitors' experiences of the tower may be diverse, the structural image of it in the space of Busan is principally based on modernism. Soaring up in the middle of poor, humble everydayness, it provides the intensive visual scene of domination and hegemony. In this respect, Busan Tower has a structure analogous to the modern desire of the local subject who objectifies his life and privileges only vision. First, the height symbolizes the modern inclination to understand development and progress as a supreme order and intend upward mobility and transcendence. This also structuralizes the disjunction between the everyday life of local people and their vision by isolating only vision from the daily space and placing it in the transcendental spot of 120m height. Furthermore, it encourages them to see their life with the homogeneous, abstract vision by internalizing the vision detached from their everyday life. Under the control of this homogeneous, abstract vision, the qualitative life of the region and its sensuous rhythm become forgotte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Busan, the nationalization of this city was indeed nothing less than that of oblivion of the regional life. Perhaps, it was this oblivion of the region which made novels about the regional life gradually disappear not only in rapid grow and expansion but also in violent transformation of the way of life.

4

In the 1990s, discourses about regionality and regional values became popular in Busan. This was caused by many reasons, two of which is the spread of the political democracy, or local self-governing and holistic change of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leaved the city or were forced to close down to be replaced with distribution, tourism, and service industries. In 2000, service industry comes to occupy over 70% of the economy of Busan. The rapid change of the regional economy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the political sense of the region directed the attention to the region. The forgotten region is coming to consciousness. Nevertheless, the problem is not a mere rehabilitation of the region or recognition of its values but overcoming of oculacentric, modern desire that has objectified and dominated and has separated the daily life of the region from the eyes on it. On the contrary, what is occurring in the region seems to unfold in a different way. Accompanied by tourism, oculacentrism begins to show itself more intensively. The mechanism of tourism creates a noticeable phenomenon that the gap between daily life of the region and the eyes on it is bridged, which is not overcoming of oculacentrism but its extension and development. If the modern vision privileged and isolated only the seeing from the rhythm of everyday life, now the seeing returns to everyday life and begins to change it. So to speak, in the mechanism of tourism, the separation between the rhythm of everyday life and the eyes seeing it implodes and a much more ingenious oculacentrism which transforms daily life into spectacle is newly emerging.

Bibliography

Gojin, Garatani, *History as Museum (Created Classics)*, Wang Sukyoung, SomyOng Publishers, 2002

Kim Younggyu,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and the Psychoanalysis of Modern Busan", *Korean Critical Review*

Kuwabara, Shisei, *No Photography— Korea: Upheaval of the Quarter of the Century*, Noonbit Pub.Co, 1994

Park Youngu, *Manufacturing Industry 1900~2000(II)*, Research Center for Busanology, 2005,

Yoon Sanggil, "A Study on Modern 'nation' Constituted by Media Related to Saemaeul Movement", 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Lee Jinkyung, *The Birth of Modern Time and Space*, Prunsoop Publishers, 2005

Im Huicheol, "Dependent Capital Accumulation and its Consequence", in Park Hyunchae(ed), *Korean Modern History for Youth*, Sonamu Publishers, 1993.

Cho Gapsang(ed.) *Busan in Novels -From Blood Tears to Our Festival*, Kyunsung University Press, 2004.

Crary, Jonathan, *Techniques of the Observer*, Im Donggeun and Oh Sunghu(trans.), Munhwa kwahaksa, 2001.

Hama, Hideo, Museum as Time Machine, in Understanding Of Anthropology of Tourism, Hwang Dalgi(trans.), Ilsinsa, 2001.

Hashiya, Hiroshi, *Japanese Imperialism Builds a Colonial City*, Kim Sejeong(trans.), Motive Publishers, 2005

Hong Seongtae, *Beyond Dangerous Society*, Seagil Publishers, 2000

Mosse, George.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Howard Fetig, 1975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Kim Younggyu

Born in 1963 in Busan.

Major: Cultural Study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B.A.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h.D.(*The Rise of Criticism and Rise of English Literature*)

Postdoctorate Course i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

7th Gadam Academic Award(*From Literature to Culture*)

Editorial member of *Korean Critical Review* and *Criticism and Theory*.

He is an author of *From Literature to Culture*, *The Landscape of Culture, the Place of Theory*(co-authored), *The Otherness of the Other and its Discursive Strategies*(co-authored), and *The Poetics and Practice of the Between Space*. He also writes "Critical Approach under the World-System in the Case of Jameson, Moretti and Canclini", "The Prospect of Semi-Peripheral Regional Literature", "Reorientation of Cultural Studies and the Theory of Hybrid Cultures", "The Materiality of Simulacre and the Politics of De-Representation" and translated *Criticism and Objectivity, Eurocentrism, A Study of Anglo-American Culture: The Footstep of Robinson*(co-translated). He is dedicated to studying the

theories of Western Culture, in particular, semi-peripheral cultural studies and practical cultural studies on urban space. “Busan in the Change into Abstract Space”(*Korean Critical Review*, spring, 2002),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and Psychoanalysis of Modern Busan” (*Korean Critical Review*, winter, 2003) and “The Change of the Space of Busan and Its Cultural Meanings”(*Korean National Culture*, Oct. 2004) are his essays on Busan.